

고하선생 탄신 123주년 추모식

추모사

오늘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23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위국헌신정신을 기리고 그 유지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고귀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고하 선생님께서는 교육자로서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를 엿보자'는 실력양성론을 전파하셨으며 언론인으로서 일제 치하에서 국민계몽과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대표 48인으로서 3.1운동을 적극 계획하신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3.1운동 후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선생님은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으며 광복 후에는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선진사상과 경륜을 펼치시며 부강한 조국을 이루어내고자 진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께서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굴의 정신과 확고한 신념으로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창달에 외길로 매진하시어 애국혼의 표상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고하 선생님!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자존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국제사회의 원조가 없이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 현재 전 세계 IT, 자동차 시장을 휩쓸고 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물론 세계에서 11번째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등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폭압 아래 신음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절절한 조국애와 희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손인 저희에게는, 애국선열께서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

도록 굳건히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면 애국선열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으며 국가관과 안보관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올해 북한은 주변국에 대한 핵공격을 공언하는가 하면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 잘못을 남한에게 돌리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혼란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적 위기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개개인의 현명한 판단과 미래에 대한 준비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 할 수 있는 나라사랑 정신을 갖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 보훈정책을 적극추진,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하 송진우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2013. 5. 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윤두섭